월간양돈에 바란다

부가세, 자조금 문제 심도있게 다루길…

최 희 태(광주전남도협의회장)

어느덧 내년이면 양돈산업이 완전히 개방되는 시점에서 우리의 월간양돈이 17주년을 맞이하게 된것을 양돈인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축하하며, 무안한 영광으로 생각한다.

이제는 모든 것이 개방되는 이 현실에서 「월간양돈」지가 양돈인의 견인차 역할과 횃불이 되기 위해서는 폭넓은 선진국의 양돈산업을 시리즈형태로 소개함과 아울러 우리 양돈인만이 이용하는 「월간양돈」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 주부들이 애용하고 바라는 「월간양돈」지로써 탈바꿈하기 위해 월별 돼지고기요리 강습회 내용을 많은 지면에 홍보하였으면 한다.

그리고 우리의 숙원인 사료관세와 부가세 자조금 문제 등을 좀더 심도있게 다루어 전 양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공감이 갈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면 한다.

이렇게 노력함으로써 양돈협회 임직원여러분과 우리 양돈인이 결집된 힘으로 월간양돈이 명실상부한 양돈인의 횃불이 되리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한국의 양돈산업발전에 큰 足述을 남기리라 기대한다.

양돈인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어 주길 기대하면서

조 봉 희(마산지부장)

먼저 창간1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린다. 79년 7월 창간호가 나온지가 엊그제 같은 느낌이 드는데 벌써 17주년을 맞이하게 됨에 실로 감회가 새로와지면서 그동안에 우리 양돈인의 지침서가 되어 양돈 산업의 발전을 위해 크나큰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그동안의 우리 양돈 산업은 호황과 불황이 되풀이 되었는가 하면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너무 많았는데도 이를 극복하고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고 나아가서 수출 산업으로 까지 이루어짐은 「월간양돈」지가 앞장서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신속히 알려 주고 최신 기자재와 자동화 시스템을 소개해 주며 돼지 사양 및 경영 기술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전달해 준 공에

힘입은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양돈 산업은 앞으로의 태풍에 대해 정신적으로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WTO체제, 돼지고기 항생잔류물질 규제, 환경(배설물 해결), 사료값 인상 등 급변하고 있는 양돈 산업의 현실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존립할 수 없는 냉엄한 무한 경쟁 시대를 체감하고 있는 우리 양돈 산업을「월간양돈」지는 지금보다 더욱 큰 각오와 사명감으로 우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주고 모든 양돈인들이 갈망하는 새로운 이정표가 되어 방향제시를 하여 줄 것을 기대한다.

개방화시대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멀리 넓게 볼 수 있도록 해외 뉴스는 물론 모든 국제 정보를 신속하게 실어 줌으로써 세계속의「월간 양돈」지로 발전되리라 믿는다.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고기 관련 지식전달에 관심 높일 때

황 춘 식(미트저널(주) 대표이사)

축산물의 수입개방의 여파가 양돈업계를 어렵게 만들것으로 생각된다. 식육업계에서는 내년에는 수입돼지고기가 5만톤, 그 다음해는 10만톤이 수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한 패커는 내년에 1만톤의 돼지고기를 수출하겠다고 말할 정도다.

「월간 양돈」은 그동안 사양기술 등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역할을 해왔다. 시대가 변하는 만큼 이제「월간 양돈」도 단지 사양관리나 질병방역 등의 관심에서 이제는 최종산물인 돼지고기를 생각하게끔 여론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제는 생산자들이 "길렀으니까 누가 가져가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은 버려야 할 때다. 수입삼겹살을 먹으면서 수입인지 국산인지를 전문가도 구별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산과 수입육의 품질 차별화가 안된다는 얘기다.

앞으로는 돼지고기를 부분육으로 판매하는 1차 가공업체들이 국산을 외면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수입육을 사용하면 전·후지의 처리 등 골치아픈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다면 생산자들은 돼지를 기르기는 했지만 판매가 어려워질지도 모른다.

때문에 과거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양축가들이 고기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하고, 귀찮은 일이겠지만 소비자들이 어떤 고기를 좋아하는지 알아야 한다.「월간 양돈」이 사양가들에게 이같은 지식을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때다.

질병의 예방 및 해결대책 집중 게재해야

한 경 수(베링거 인겔하임)

우선 전국의 양돈협회 회원과 함께「월간양돈」이 창간 17주년을 맞이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를 보내고 싶다. 월간 양돈이 지금까지 전국의 양돈협회 회원들 농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는 점에 대해서도 양돈인의 한사람으로 감사를 드린다.

「월간 양돈」은 지금까지도 잘해왔지만 몇가지 아쉬운 점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질병에 대해서 산탄적으로 한 달에 한가지씩 게재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분기1회 혹은 반기1회라도 정말로 농장의 생산성 향상 노력(원가절감 노력)에 극히 장애가 되는 질병(우리는 흔히 일시적으로 폐사가 많이 생기는 일부 질병을 양돈의 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양돈인의 수익을 일년내내 또 몇년간 계속 갉아먹는 질병은 사료비가 많이 들도록 만드는 질병, 즉 사료 효율이 나빠지던가. 출하일령이 길어지는 질병이 개별 농장으로나 국가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일으킨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의 예방 및 해결 대책에 대해서 여러가지 관점에서 기사를 게재했으면 한다.

예를 들어서 질병의 개요(원인, 증상, 예방, 치료)에 대해서 글 1개를 싣고 '이 질병을 시설쪽에 어떻게 개선하면 해결할 수 있나?' 라는 제목으로 또 글을 1개 싣는다.

물론 이때도 일반적인 시설의 원리와 우리 양돈인들의 공통적인 시설의 문제점 또 지역에 따른 시설의 문제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그것을 개선한 예를 상황설명부터 시작해서 읽는 사람이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기술한다.

또 백신을 사용하여서 해결한 방법을 제목으로 글을 1개 싣는다.

왜 백신을 사용해야하는가? 백신을 사용하는 올바른 방법 등에 관해서 상세히 싣고 또 성공한 농장 몇 개의 사례를 자세히 소개한다.

즉 시설, 관리방식, 백신, 항생제 등 농장들이 사용하고 있는 다각적인 방식을 좀더 체계적으로 우리 주변 농장들을 예로 들면서 구체적이고 알기쉽게 기술한다면 우리 양돈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월간 양돈」 기자들이 좀더 많은 양돈인을 만나보아야 할 것이다. 즉 좀더 발 빠르게 현장을 누비고 다니면서 진실된 얘기들을 수집하고 기사화해야 한다.

전문가의 조언이나 성공사례 게재하길…

원 창 희(두남엔지니어링)

「월간양돈」의 창간 17주년 기념호에 이런 글을 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본인은 축사시공 및 내부시설기자재 제조업체에서 돈사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다. 따라서 업무상 여러 기존의 농장 및 신축농장을 방문하던 도중에 느꼈던 사항들을 이번기회를 통하여 간략하게 표현해보고자 한다.

정부는 1991년도부터 막대한 자본을 들여 여러단지를 조성하여 낙후된 국내축사의 현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따라서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양돈단지는 효율적인 사양관리를 실현할 수 있는 주간관리 프로그램을 적용한 무창돈사로 시공되고 있다. 그런데 환기(Ventilation) 및 단열(Insulation) 등 시공이전에 정확한 분석이 요구되는 무창돈사시설은 축사에 대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데 일부 양돈단지에서는 축사에 대하여 잘 파악하고 있지못한 일반 건축업자와 연계되어 축사를

시공하고 있는 바 시공상의 오류나 자금운영상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치명적인 손실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권위있는 양돈지인 「월간양돈」에 바라는 점은 무창돈사의 시공 및 운용상의 기술적인 부분들을 싣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공기관에서의 행정업무상의 원활한 처리진행방법이나 계획적으로 자금을 운영하는데 대한 구체적인 방안 등 제반적인 사항들을 전문가의 조언이나 성공한 양돈단지들의 사례 등을 통하여 현실에 당면한 축산인들에게 간접적인 경험을 유도하여 보다 효율적인 농장운영에 도움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다.

다시한번 월간양돈의 창간 1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변화를 주도하는 지도자가 되길

김 재 원
대한제당(주) 무지개사료 양돈P.M

17주년을 「월간 양돈」의 창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우리 나라의 양돈산업 발전을 위해 중요한 정보와 기술을 지속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오늘날의 한국 양돈이 있기까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온 「월간 양돈」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바라는 점에 대해 말씀드릴까 한다.

우리 양돈 산업은 변화해야만 하는 시기를 거치고 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처하기 위한 변화는 많은 양돈인들이 공감하는 상황에서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변화는 첫째 의식의 전환이다. 전체적인 경제의 발전에 편승한 양돈 산업의 발전은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적극적인 개척 정신이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는 생산 체계의 변화이다. 생산의 주요요소인 사료, 종돈, 축사와 환경, 사양 관리, 질병 조절 등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동시에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도 간과하지 않음으로써 경쟁력있는 생산 수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는 양돈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산업들의 변화와 발전이다. 양돈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월간 양돈」은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는 지도자(Opinion Leader)가 되어 양돈인들의 실제 행동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월간 양돈」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양돈인이 애독하는 정보지로써 전통과 미래가 함께하는 월간지로 발전하길 기원한다.

양돈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제시해야

이 경 록 (문경농장 대표)

요즈음 양돈업계 뿐만 아니라 모든 축산업계가 총체적인 위기를 맞이 하여 너나 할 것 없이 앞으 로 어떻게 헤쳐나아가야 할지

참으로 걱정이 많다. 곡물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사료가격 인상요인, 환경문제의 강력한 대두, 질병문제 등등으로 하룻밤 지새우면 양돈장 하나씩 폐쇄되고 있으니 근심, 걱정이 그칠 날이 없는 이때에 월간양돈지가 창간된지 벌써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현재까지 왔으니, 그간의 양돈업 발전 상황에 대한 삶의 증인인 전문지로의 발돋움을 축하드린다.

17년이라는 세월2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다. 초창기의 월간 양돈지, 현재의 월간양돈지의 내용을 보면 양돈업 발전에 따라 많이 바뀌어졌고, 그 내용 또한 다양해졌다. 그것이 곧 양돈인에게 많은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주는 매개체 역할을 해주었으니 더욱 감사하다. 현시대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적응하고 미래를 기획하고 있다. 바라건대,

1. 월간 양돈지도 마찬가지로 따라 가야만 한다. 틀에 박힌 내용이 아니고 보다 실질적이고 알찬 내용으로 양돈농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기획해야만 한다. 단편적인 지식을 기술하여 양돈농가에게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월간양돈지가 양돈농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양돈농가가 월간양돈지를 찾아 도움을 받고자 했을 때에 그 가치를 찾을 것이다.

2. 양돈인 단체인 양돈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월간양돈지는 분산된 양돈인의 힘을 한 목소리로 양돈인을 결집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에 여기서는 이소리, 저기서는 저소리 등등 나오면 아무리 유능한 인재가 있어도 활용될 수 없고, 결집이 잘된 타 분야에 정부나 기타 단체는 귀를 기울이게 된다. 잡지라는 매개체를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양돈인을 결집시켜서 양돈인의 권익을 찾아 보호해야 한다.

아뭏든 17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꾸준히 발간하여 도움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월간 양돈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창간 17주년을 축하한다.

돈 • 육 • 비 • 방

■ 돼지고기와 한약과의 관계?

흔히들 한약을 복용할때에는 돼지고기의 섭취를 금기로 하는데, 오히려 한의학에서는 돼지의 내장, 염통, 간, 쓸개, 지라, 허파, 콩팥, 피, 기름, 발톱에 이르기까지 한약의 원료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돼지고기와 한약은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는 것이 입증된 것으로 한약과 돼지고기와의 그릇된 편견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